Messenger International

2024 News Letter

2024 Messenger' slogan "A life that seeks the benefits of many people"

"1만원의 후원, 그리고 16년의 동행"

- 6년 만에 열리는 '2024 멤버스데이' 행사를 기다리며 -

지난 여름은 올림픽의 열기로 더욱 뜨겁게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역대 가장 적은 규모(144명)로 출전하였음에도 전체 순위 8위라는 기염을 토해냈는데, 그중 3연패를 달성한 남자 단체 펜싱 사브르 종목과 10연패를 달성한 여자 단체 양궁 종목에 많은 포커스가 집중되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각종 매스컴에서는 이런 성공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는 기사들이 줄을 이었는데, 먼저 펜싱의 오상욱 선수는 어린 시절 가난하여 좋아했던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대전 지역의 한 비영리 장학단체(2009년~)로부터 꿈나무로 선정되어, 1만원씩 모금된 회비를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펜싱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회자 되었고, 양궁은 비인기 종목임에도 40년째 꾸준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한 대기업의 헌신이 그 배경으로 드러나며 성적만큼이나 감동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메신저인터내셔널 역시 2009년, 해외의 한인 다문화 아동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이래, 올해로 16년째라는 긴 사역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오랜 걸음에 물론 큰 금액으로 함께 해주신 단체 및 개인 후원자분들께도 벅찬 감사함을 느끼지만, 매달 1만원씩, 어쩌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 여겨질지라도,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꾸준한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분들께 더욱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후원 덕분에, 꿈꿀 수 없었던 아이들이 꿈꾸게 되었고, 고단한 삶의 굴곡들도 넘어설 힘을 얻게 되었으며, 사랑을 받기만 하던 존재에서 사랑을 전하는, 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자신들의 삶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는 11월, 후원자와 수혜 아동 간의 만남의 시간인 멤버스데이가 장장 6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동안 꾸준한 후원의 열매를 확인해주시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 메신저인터내셔널 소개

◉ 법인성립일 : 2009년 10월 5일 ◉ 등록기관 :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 사역 대상 및 지역 : 필리핀에 거주하는 코피노(코리안 필리피노) 아동 및 그 가정
"한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한국인 아빠에게 버려져 빈민가에서 차별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아동들"

◉ 사역 목적 : 코피노 아이들이 출생의 배경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나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며, 다문화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이 되도록 격려하여, 장차 사회의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성장시키고자 함

◉ 사역 목표 및 기대 : '교육'과 '자활'을 목표로, 아이들에게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고 엄마들에게는 자활 및 자립 방안을 마련해주고자 함

◉ 사역 내용 : 교육 지원 (공부방, 한글·악기학교, 합창단, 태권도 시범단, 장학금)
자활 지원 (구호 및 생계지원, 소규모 창업을 위한 자립 지원금)

◉ 후원 사역지 : 필리핀 앙헬레스 센터 (조근묵, 최주영 선교사), 필리핀 세부 센터 (위탁 장학지원)

◉ 함께하는 사람들 : ■ 이사장 : 김춘호 ■ 사무총장 : 김명기 ■ 감 사 : 유봉환
■ 이 사 : 김정순, 박동찬, 송병석, 신상두, 이인선, 이인재, 이정준, 김변호, 장대근, 홍정민, 존리

행복한 동행

협력 사역자 (단체)

- 언 론 사 : 국민일보 (2013. 04 ~ 업무협약 '아시아 희망 프로젝트')
- 업무협약단체 : 국민일보(사)국민여성리더스포럼, 나눔재단 월드채널, 사색의향기문화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월드리더스재단, 지앤엠 글로벌 문화재단
- 사역협약교회 : 강릉중앙교회, 대림교회, 만석교회, 목양교회, 의왕우리교회
- 후원기업 : ㈜선광티앤에스, ㈜다음정보기술, ㈜리딩아이, 법무법인 루츠, 라이텐쉐이드
- 후원교회 : 강릉중앙교회, 문호교회, 송도좋은교회, 열림교회, 이룸교회, 주다산교회, 수표교교회, 분당 다함교회, 제천제일교회, 영광교회, 일산광림교회, 갈릴리교회, 홀리씨즈교회, 평촌새중앙교회

2024 특별 후원자

- 일 반 :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 ㈜제너셈, 어강(엔하임요양병원), ㈜휴먼소프트웨어, 김다빈, 박보미, 이경일 님
- 장 학 : 빛가온교회(서길원 목사), 세종물댄동산교회(권균한 목사), 갈릴리교회(김영복 목사), 상계광림교회(권병훈 목사), 주기철 대표, 김진홍 대표
- 현 물 : S마켓 경주점(이태경 대표), ㈜링코제일(최종태 대표)

Messenger's Message!

<초청의 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전 10:31~33)*

2024년은 고린도 전서 10장 31~33절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삶의 실천**은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달콤한 디저트 한 개, 소액의 적금이나 보험 대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고민**하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선택**하신 **후원자분들의 귀한 섬김**이야말로 **이 말씀이 실재함을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당신 일상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소외된 이들을 위한 마음과 물질로 기꺼이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그 1만원의 섬김이 16년째 메신저 사역의 꾸준한 걸음을 걷게 하는 당연한 이유와 힘이 되어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코피노 아이들도 수혜를 받는 수동적 존재에서 사랑을 나누는 적극적 존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24 메신저 멤버스데이>에 가장 귀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여러분이 심은 사랑의 씨앗이, 어떤 꽃이자 어떤 모습의 열매로 자라났는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예쁘다고, 너무도 사랑스럽다고 말씀해주세요.♡

**오시는 분들에게 식사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더욱 새로워진 마음가짐으로
-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 코피노 센터 오는 길 -

시내 새 센터로 이사 후, 더욱 기다려지는 공부방에서의 시간

올해 앙헬레스 코피노 센터에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바로 시내의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 센터가 빌리지 안에 있는 가정집을 렌트한 공간이다 보니, 아무래도 현지인 주거지에 있어 소리 내는 것도 조심스럽고 자유롭게 다니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옮긴 센터는 시내 상업가 지역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교실도 3개로 나뉘어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2월 오픈한 센터는 먼저 신발과 생리대 등 후원품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 매주 한글과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과제물을 프린트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K-FOOD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진행된, 코피노맘 '한국요리교실'

전 세계적인 K-컬쳐에 대한 인기와 더불어, 지난 3월에는 코피노맘 대상으로 센터에서 '한국요리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만든 음식의 종류는 바로, 한국인의 대표 음식 '김밥'과 '김치'였는데, 숙련된 한국인 조교의 시범 이후 레시피를 따라 잘 만들어 보았습니다. 비록 필리핀식으로 만들어져 조금 달고, 젓갈 등으로 묵히지 않아 깊은 맛은 덜했지만 그럼에도 새콤달콤 맛있게 담가져 무척이나 만족해했습니다. 앞으로도 코피노 센터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들을 위한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친근한 선배에서 존경하는 사범(師範)으로의 성장
- 후배들에겐 따뜻한 선배, 수강생들에게는 엄격한 강사 -

4년 만의 복귀

메신저 코피노 센터의 자랑이 있다면, 바로 훌륭한 태권 유단자들을 많이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메신저에서는 2016년부터 태권도 수업을 지원해왔는데,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체력적,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암흑의 시간을 지나며 자유로운 이동과 모임이 제한되자 어쩔 수 없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야심 차게 태권도 교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여려 보이기만 하던 아이들이 도복을 맞춰 입고 자세를 갖춘 모습이 더없이 씩씩하고 든든해 보입니다.

특별한 사범님과 함께하여 더욱 열정적인 아이들

지난 지원 프로그램 속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바로 에렘과 은 자매 같은 전공자들을 발굴해냈다는 것입니다. 올해 스무 살이 된 '에렘'은 태권도 전공을 살려 대학 형사학과에 다니고 있으며, 동생 '은' 역시 2단 유단자로 같은 전공으로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찰관이 되는 것이 꿈인데, 착실하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에 선배로 있을 때는 누구보다 따뜻하지만 강사로서는 더없이 엄격합니다. 이번 태권도 교실은 바로 이들이 강사로 함께해줄 것을 자원하면서 시작될 수 있었는데, 모범이 되는 이 선배들을 모델로 따르고자 원하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사랑받던 존재에서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 더욱 사랑스럽고 성숙해진 아이들의 뜨거웠던 올해 여름 -

벌써 3번째, 빈민가에 세워진 개척 교회에서 성경학교 스탭으로 섬겨

2023년부터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웃리치'가 벌써 3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코피노 센터에서 자원하는 아이들 14명이 모여,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고 6월에 현지 빈민가에 개척된 리버사이드 교회로 가서 진행했습니다. 올해 특별히 추가된 프로그램은 바로 태권도 시범으로, 옹기종기 모여앉은 90여명의 현지인 아이들이 멋진 품새 장면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처음은 조금 어색했지만 아이들과 말씀 카드를 나누고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점차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남을 돕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도 성장하고 삶의 비전도 발견하게 돼

3회째를 맞으며 이제 아이들에게 이 봉사활동은 그들의 삶에서, 어쩌면 당연한 섬김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스스로 더 효율적인 다가감의 방식을 고민하고, 직접 프로그램도 짜면서 점차 성숙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아이는 바로 아드리안나(16세)로, 어린 시절에는 다소 부끄럼 많고 내성적인 아이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진행 스탭으로 섬기며, 점차 리더십도 갖추어가고, 이것에 스스로 즐거움과 보람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의 미래 직업과 삶의 비전을 구체화하게 된 것입니다. 벌써 다음번 아이들의 성장의 모습이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자랑스런 코피노 소개 - 6개의 성적 우수상과 메달을 받은 조셉이(17세)

메신저의 장학 지원을 받고있는 조셉이가, 재학 중인 사립고등학교(System Plus Foundation)에서 지난 학기를 마치며, 성적 우수상을 포함하여 각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메달 6개를 받았습니다. 조셉이는 팬데믹 때(2021)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자, 수업을 마친 오후 시간에는 자기 집 앞마당에서 물건을 팔며, 그 얻는 수익으로, 힘들게 일하시는 엄마(콜센터 안내원)의 살림을 도왔을 정도로 효심이 깊은 아이입니다. 그런데다 이렇게 이번에 학교에서도 우등생으로도 꼽히게 되니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조셉이가 건강하고 바른 아이로 멋지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 기도 요청 - “알리샤를 위하여”

올해는 알리샤(9세)에게 혹독한 한 해였습니다. 엄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리샤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쿠웨이트에 일하러 갔는데, 지난 3월 알리샤와 이복형제 3명을 대신 돌봐주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알리샤와 이 남매들은 갑자기 예전에 알던 한 이웃사촌 아저씨 댁에 맡겨졌는데, 그분의 생활도 너무나 힘들어, 위험과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사역자분이 급하게 찾아가 식료품을 전달하고, 벽도 없는 열악한 집에 우선 모기장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엄마는 바로 필리핀으로 돌아오려 노력했지만, 현지 비자와 근로계약 등의 문제로 입국이 지연되며 안타까움만 커져갔습니다. 현재로서는 12월말에라도 입국하려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설사 돌아온다고 해도 직장은 잃게 되어 다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알리샤와 이 가정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 기도제목

◉ 마음을 모아주세요

1. 메신저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단단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2. 멤버스데이(11/7)를 통해 메신저 사역이 더욱 알려질 수 있도록
3. 1만원 후원에 동참하는 정기 후원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 공지 안내

1. 내년 초에 발급되는 2024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 개인정보(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분들이나 영수증 발급을 최초에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입 필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2. 필리핀 메신저센터 도서관에 비치할 영어책과 온라인 수업을 위한 노트북 등을 후원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Messenger International

후원계좌

1. 신한은행 100-025-948669 / 예금주: 사단법인 메신저인터내셔널
2. 외환은행 630-272206-458 / 예금주: (사단)메신저인터내셔널

우 04969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44, 512호(광장동114 크레스코)
T. 02-722-0645~7 F. 02-737-5997 www.messengerin.com
(사)메신저인터내셔널 이사장 김춘호 사무총장 김명기